



차경환*
(중앙대학교)

한국인의 영어 현주소

한국인의 영어 수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영어 사용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익숙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라는 말을 쉽게 하고, 심지어는 일부 영어를 지도하는 교수님들도 종종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를 10년 이상 배우고도 외국인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며 자조 섞인 말을 쉽게 한다. 내 주위에는 영어를 잘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왜 그분들 주위에는 못하는 학생들이 그렇게도 많을까? 한국인의 영어 사용능력은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것은 남자 180cm의 키는 큰 키이나, 농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키이다. 나는 영어교육과 교수로서 한국인의 영어능력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싶다. 국내외의 여러 영어교육학자들의 이론들도 그러한 영어 사용능력에 대한 부정적 혹은 비관적 시각은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KATE 15~18대 편집이사, 17대 국제 협력이사 역임

정말 한국인의 영어능력은 매우 낮은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방학이면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라. 그들은 영어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큰 불편 없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하며 여행을 즐기고 돌아온다. 또 1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사업가들로부터 통역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가끔 받았었는데, 몇 해 전부터인가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영어권 나라에서 학위를 받은 여러 교수님들의 “한국 영어교육의 형편없음”을 주장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배운 영어로 학위를 마쳤다는 말인가? 그분들은 영어를 미국이나 영국에서 영어집중 코스를 몇 년간 수료했다는 말인가? 미국의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 많은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한국인 교수나 연구원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그분들의 영어능력의 80% 이상은 한국에서 공부한 결과물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20년 혹은 10년 전 학생들의 영어 실력보다 현격히 좋아졌다.

이것은 영어 공부를 책보다는 TV나 인터넷,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영어 학습에 관한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내가 27년간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해 있으면서 관찰해 본 바로는 영어교육과 입학생들의 영어능력은 10년 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최근 신입생들의 80%는 강의를 영어로 듣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있는 채 입학한다. 물론 좀 다른 통계도 있을 수 있지만, TOEFL 성적에 있어서 한국인은 7~8년 전보다 2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 한국인은 자신이 가진 영어 사용능력만큼 영어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것일까? 이는 한국 특유의 서열식 문화와 명품지상주의 문화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서열식 문화에서는 10년을 공부하면 5년 한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

받은 적은 사람보다, 지위가 높으면 낮은 사람보다 모든 것이 월등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영어를 10년을 공부하면 반드시 잘해야 하고, 영어 선생님은 완벽한 영어를 써야 된다고 선생님 자신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그렇게 기대한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완벽한 영어를 쓰지 못할 바에야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풍토가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외국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랍계나 남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덜 정확한 발음과 쉬운 단어 나열식의 영어능력으로 자신감 있게 대화하고 남 앞에서 말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빨리 빨리 문화다분엔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언어 학습에서는 초고속 처리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언어 학습은 인내, 실수, 좌절, 노력 등이 필요한 장기간의 훈련과정이다. 더구나 영어처럼 한국어와 차이점이 많은 언어는 그러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나는 35년 이상 영어를 공부했고, 27년 동안 영어교육과에서 영어를 지도해오는데도 아직도 매일 모르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럼 우리는 한국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려운 단어, 고사성어, 신세대 속어, 경제나 컴퓨터 용어 등등, 우리는 따지고 보면 한국어에서도 모르는 것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것이 없다고 본다.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도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2000개 정도의 공을 치면서 연습을 하는 것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연습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영어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단어, 문법, 독해 실력을 갖추고 있으나 그 각각의 요소들이 통합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그럴만한 기회나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온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 일 것이다. 방송, 여행 등으로 영어권 국가들과의 접촉이 잦고 영어가 제2언어처럼 생활화된 유럽인

들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영어 사용 기회나 환경을 접하고 있다고 보겠다.

영어교육의 현실을 호도하는 언론

가끔, TOEFL 성적이 북한보다 낮고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 소리는 언론이 통계적 착시(錯視)를 영어교육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포장해서 교묘히 호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플 시험을 초등학교도 보고, 몇 번을 보고 수십만 명이 보지만, 북한은 꼭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이 준비해서 본다. 방송이나 언론은 취재 방향을 정해 놓고 원하는 방향의 통계치와 인터뷰로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영어능력이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하다”는 기사도 보았다. 그 신문기자는 대학생이라고 말하면 어느 대학생을 말하는지 구체적 증거를 대 보기 바란다. 언론을 포함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영문학 전공자와 영어교육 전문가를 구별 못한다. 영문학자, 즉, 드라마나 시, 소설을 전공하는 교수가 영어교육 전공에 관해 책을 보는가? 논문을 그 분야로 쓰는가? 영어교육에 관해 수업을 하는가? 영어교육 학회활동을 하는가? 영어교육자가 시, 소설, 드라마 전문가가 아니듯, 영문학자는 영어교육자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영어교육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전공자를 모신다고 버젓이 영문학자를 모신다. 정형외과와 성형외과는 엄연히 다른 전공이 아닌가?

외국인을 길에서 만나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도 영어실력에 그 전적인 원인을 돌릴 것이 아니다. 길을 가다가 한국인으로부터 한국말로 질문을 받아도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힐 수 있는데, 영어로 그것도 외국인이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마이크를 들고 와서 얼마 전 KBS TV방

송국에서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실을 취재하는 장면에서 했던,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물어 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질문한 그 외국인이 그 답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신의 영어 사용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는 영어 사용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데서 연유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 실험에서도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발음도 못 마땅해 할 정도다. 우리들 사이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는 사람이란 CNN 뉴스를 알아듣고 영문 편지나 글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영어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고 있다. 1분에 약 180~220개의 단어가 발화되는 CNN 뉴스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1분에 160~190개의 단어가 발화되는 보통 회화수준의 속도를 훨씬 능가한다. 더구나 CNN 뉴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로 많은 시간을 들여 훈련해야 하고, 여러 기사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영문 편지를 쓰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인 대학생조차 작문다운 작문을 쓰기 위해 학부 때 두 과목을 필수로 수강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어 사용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영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목표로 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영어능력을 자신 있게 평가하고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13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영어교육

우리나라는 1883년에 동문학(同文學)이라는 곳에서 영어교육이 처음 시작하였다. 금년은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한지 133년이 되는 해이다.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역관등을 양성하고자 영어교육이 시작되었고, 한국인 영어교사가 없어서 독일인 Paul Möllendorff, 영국인 전기기술자인 T. E. Halifax와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인 唐紹儀 등이 구한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133년 전이면 나의 할아버지 세대이며, 한 나라의 역사로 볼 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다. 일본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된 역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70년 정도가 더 늦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영어 사용환경의 저변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언론이나 많은 일반인들이 한국 영어교육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 놓지만,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한국인의 영어교육열에 기인한 관심과 투자는 세계일등이고, 한해 21조의 사교육 시장에서도 수학과 영어는 주요 메뉴이며, 교재는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최근 임용되는 영어교사들의 능력은 고등학교 졸업기준 상위 1%의 성적 우수자들이다. 영어경시대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면, 간혹 탄성을 자아낼만한 어린이 영어실력자를 발견한다. 그들이 모두 외국에서 영어를 배웠는가? 내 주위에 영어를 잘하는 많은 학생들 중에 순수하게 한국에서만 공부한 경우도 많다. 사회 각 분야에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 종교인, 예술인, 서비스 업종 등등 모든 분야에서 영어로 자신의 분야의 내용을 영어로 잘 전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사업가가 자신의 상품이나 사업에 관해 영어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으면 족하지, 30분짜리 영어 발표회나 좌담을 할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영똥한 방향으로 가는 영어교육

최근 우리나라 영어교육 방향성이 국제적인 흐름과 영 다르게 가고 있다.

즉, 6년 동안 인적 자원과 600억 원의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4기능 컴퓨터기반 시험인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을 개발해 놓고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 시험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고, 실행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럼 시작 단계에서 그런 조사도 안하고 그런 거액을 장기간 투자 했다는 말인가? 한국의 국가 정보력과 연구 능력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말인가? 그럼 공교육에서 4기능을 지도할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 수학능력시험을 쉽게 내고 등급을 상향평준화하면 영어능력이 올라가는가? 133년이나 되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방향이 유훈을 하고 있다. 일본도 중국도 4기능 평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사교육을 잡는다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출제를 EBS 교재에서 70%를 내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수능 영어의 EBS 연계율 강화와 이에 따른 암기식 수업으로 인해 영어 실력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작년 수능에선 영어의 EBS 연계율이 75.6%로 모든 과목 중에 가장 높았다. EBS 교재만 잘 암기하면 수능 10문제 중 7~8문제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매년 수능을 앞둔 고3 교실은 교과서 대신 EBS 교재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매일경제, 2015년 2월 10일). 우리나라 영어교육 전반에 있어서 국가적 방향이 잘 못되고 있을 때는, 일반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후학들과 영어교육 후배들을 위해서라고, 우리나라 영어교육학회의 기동인 한국영어교육학회(KATE)가 방향타를 잡아주는 역할을 잘 해주길 당부 드리고 싶다. 중심 학회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학술지 발간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언어는 순발력과 창의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사교육을 잡는다고 대입 영어시험을 EBS 교재 문항에서 출제하는 것이 어느 누구의 한심한 발상인지 개탄스럽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출근조차 안하고 방 안에서 그칠 때까지 머무르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이

제는 2018년부터 수능영어를 절대평가 한다고 한다. 5등급으로 비교를 하는데, 그 시험이 어떻게 절대평가인가? 절대평가의 표본은 운전면허시험으로 시험 전에 통과점수가 공개되고 그 점수를 다른 수험자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영어교육의 목적은 대입과 동시에 끝나는 그런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과 대학졸업 후에도 사용하는 목표를 두는 장기간의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도대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누가 방향을 좌지우지하는지 한심하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교육부 장관이 바뀐다고 영어교육 방향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개그콘서트 수준의 단계를 벗어나야 한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EBS가 2013년 “한국인에게 영어란 무엇인가?”라는 다분히 편향된 프로그램을 5부작으로 만들어, 최근에 다시 재방송을 하며 시청자 견해를 호도하는 방송을 내 보내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영어는 지금처럼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된다는 시각과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에 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언뜻 보면 옳은 소리다. 필요만 따진다면, 수학에서 미분, 적분, 순열, 삼각함수는 왜 배우는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앞으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한국어 소홀히 하는 것과 관계를 지어서 말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잘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영어를 배우면 우리 언어의 장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 괴테는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모국어를 잘 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프랑스인들은 중산층의 첫째 기준으로 “외국어 하나 정도 하는 능력”을 꼽고 있다. 21세기에는 운전면허가 특기가 아니듯이, 영어능력은 중산층 지식인으로서 필수이지, 특기가 아니다. EBS는 아직도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논할 때, 중국과 일본 사례를 들어서 말한다. 따지고 보면, 최근 중국과 일본은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EBS는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입영어시험에 EBS 교재 연계를 비판하고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편집보도 말기 바란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EBS도 사교육의 하나이다. 그런 기득권을 위해, 영어교육의 방향을 곡해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왜 그토록 바라는 국제적 금융허브의 꿈을 실현 못 하는가? 왜 우리나라는 2012년 한미 FTA에서 세부적인 이익을 챙기지 못했는가? 『기적의 대학』이란 책의 저자인 나카니마 미네오는 “일본은 왜 UN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 못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일본인의 영어능력으로 진단하고 있다.

영어 사교육은 없애야 할 암적 존재인가?

영어 사교육이 없어야 할 사회악이라면, 대학입시에서 영어문제를 쉽게 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그건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공교육을 잘 하면 된다. 그러나 영어는 10년 동안 교실에서 배운 830시간 정도로 4기능을 다 배울 수도 없어, 악기 연주와 같이 자신이 다분히 노력해야 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입시라는 경쟁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양산되는 것이다. 맞다. 핀란드나 덴마크에는 영어 사교육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학벌위주의 사회, 대학서열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없앨 수 없다. 이런 사회현상이 실체라면, 사교육은 실체의 그림자다. 사회적 실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지, 사교육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를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지나친 정치적 포퓰리즘이 교육을 잘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대상포진의 물집을 연고로 치료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정치권에서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대학등록금을 3년째 동결하고 있다. 그 결과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 대학교원들의 급여도 동결되었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의 금년월급은 3.8% 인상했는가? 이윤배반, 이중 잣대의 정치논리로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다. 이제는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대학, 학회, 일선 학교, 출판사와 사교육기관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간의 시너지를 내기위해, 경제력, 투여한 시간, 각자의 능력을 잘 융합시켜 영어교육이라는 실체를 효율화, 극대화시키는 진실함이 필요하다. 사교육도 잘 관리되고 정화되면 사교육의 장점을 국민 영어교육 활성화라는 대프로젝트에서 상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영어 사용능력에 대해 부족한 면을 부각시키는 현미경적 시각을 버리자. 우리 식탁의 음식도 현미경으로 조사하면 먹을 만한 음식이 어디 있겠는가? 김치에 박테리아가 있다고, 시금치나물에 대장균이 있다고 식사를 안 할 것인가? 어차피 우리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어 발음이 완벽할 수 없고 영어로 말하고 쓸 때 실수하는 것도 당연하다. 영어 사용능력은 듣고, 말하고, 읽고 써보는 습관과 훈련을 통해, 그리고 실수를 통해 향상되며, 더불어서 자신의 영어 사용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는 것이 영어를 잘 하게 되는 필수 요건이다.



KATE의 현재



이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내 첫 멘토링 태동과 발전

들어가는 말

한국에는 영어학습의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어린학생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깝게는 학교성적이나 대학입시, 멀리는 직장을 구하기와 나아가 직장에서의 승진은 물론 월급이 많고 적음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영어실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어 광풍을 제대로 만족시키고 효과적인 외국어학습이 일어나야 하지만 한국의 영어교육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산적한 문제 가운데, 학습자의 측면에서 또 교사의 측면에서 각각 한 문제씩을 거론한다면 필자는 다음을 거론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문제로는 영어실력이 온전한 학교 학습에서의 노력만 가지고 정해지기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환경 여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즉, 어린 시절부터 영어권 환경에서 노출된 정도나 혹은 심도 있는 사교육 정도에 따라 학습능력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 KATE 24대 연구개발 부회장 역임

라는 사실이며, 이러한 결과로 영어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소위 영어격차(English divide)의 문제는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세대를 이어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전승되는 것인데 이는 그대로 둘 경우 사회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이유로 우리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문제에 눈을 감고 기술적 향상에만 관심을 두면 되는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영어교육학회(KATE)는 과감하게 2012년 국제학술대회에서 'English Proficiency for All: Narrowing English Gap'의 주제를 가지고 영어 불균형의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의식을 제고시킨 바 있다. 이 학술대회가 국내의 영어교육관련 학회 가운데서 영어격차의 문제를 주제화 하여 공식적으로 거론한 첫 학술대회가 될 것이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필자가 이 주제를 제안하였는데 많은 임원들이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주제로 하는데 찬동해 주셨던 기억이 있다.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사회적 정치적 변혁을 직접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나, 앞으로도 주어진 여건 가운데 이 문제를 어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또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습자의 영어실력 향상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어교사의 측면에서의 문제인데 영어교사로 훈련받는 예비 영어교사들의 현장에서의 실무적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배치되었을 때의 적응력 부족을 야기할 것이며 나아가 교사의 효능감 저하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탈진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러한 교사 밑에서 학습하는 학습자의 학습도 이에 방해를 받을 것이기에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에서 예비교사를 훈련할 때부터 충분한 현장 체험이 미리

이루어지도록 함이 좋으나 실제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필자는 위의 문제에 대하여 2002년에 국내 처음으로 사범대와 중등학교를 연결하여 멘토링제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서울대 및 교육청 등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시행하는 것을 보았다. 앞으로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들이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통하여 더욱 많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멘토링의 시작

대구에 첫 영어교육 전공자 출현

필자가 1998년 3월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대구의 영남대 영어교육과에 임용이 되어 내려가 보니 수학교육 전공인 사범대 김용찬 학장님(현 입학처장)이 이제 막 대학에 임용되어 아직 어색하기만 한 필자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 분 말씀으로는 대구 지역에 필자가 첫 영어교육 전공자라면서 드디어 왔다고 하시고 기대가 많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이후 사범대 부속 연구소인 학교교육연구소장을 하라고 하시면서 큰 기대를 보여 주셨다. 다소 과도한 기대에 부담스러움도 있었으나 김용찬 학장님은 실제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주시려고 걱정하고 있었던 같다. 어느 날, 다음과 같이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생, 영어교육 전공자로서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해 보이소...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대로 영어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왔다는 것에 대한 김 학장님의 기대와 자부심은 매우 커 보였다.

특화된 교사교육 활동

학장님의 기대를 안고서 바로 시작한 것이 사범대 내의 전공인 영어, 수

학, 국어과목의 현장교사들에게 유용한 teaching tip 발간이었다. 매월 학교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한 전공 별 ‘교과교육자료집’ 시리즈가 그것이었는데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사범대학은 물론 교육청에도 우송하였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사실 상 방치되어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일종의 A/S(사후 서비스) 성격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불과 10년 전에 고교(이화여고) 교사를 할 때, 주니어 교사로서 좌충우돌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현장의 교사들을 실제로 돕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각 학과의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집필을 하였고 실제적인 활동이나 조연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등 현장의 교사들이 유용하게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처음 생활하게 된 대구 지역은 맨 처음 매우 낯설었다. 서울에서 온 이방인인 필자가 끼어 들어가기 쉽지는 않았음을 느꼈고, 또 대구의 특수성 때문인지 보수적인 분위기에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그리 정겹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시작한 것이 교생실습을 떠나는 때인 5월 초, 4학년 사범대 학생들에게 사범대 교수들이 음식을 해 주고 격려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필자가 미국에서 대학원에 있을 때 총장과 처장단들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토스트를 만들어 주며 모임을 갖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기억이 났고, 이에 말씀드리니 김 학장님도 해 보자며 흔쾌히 승낙해 주셨기에 시작할 수 있었다. 후라이팬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장을 만들며, 또 행주치마를 동일하게 맞추는 등 할 일은 많았지만, 대구의 보수적 분위기 가운데 교수가 행주치마를 차고 학생들에게 토스트를 구워주는 광경은 확실히 이색적이었다. 대구 지역의 여러 신문들이 크게 사진을 찍어 보도를 하기도 했으며 학생들도 어리둥절해 하면서 감동을 받는 듯한 큰 보람이 있었다.

* 관련기사 (<http://www.prsinmun.co.kr/news/view.html?no=5757&cate=05>)

국내 첫 멘토링

이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또 하나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은 사범대의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준비없이 교단에 서는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2002년, 사범대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인근의 시지중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씩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사범대 3학년 전원이 하였기에 학생 수가 많았고 한꺼번에 가는 것이었기에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시지중학교까지 실어 날랐고 끝나면 대학까지 실어 왔다. 대학에서 조직적으로 중·고등학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한 것은 이것이 국내 첫 경우였다.

학습지도로서 출발을 했지만 중학생들 실력은 천차만별이었고, 영어에 대한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다수인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습지도와 함께 대학생들이 큰 형 혹은 큰 언니로서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 프로그램 이름을 멘토링으로 정하였다. 학교 선생님을 통한 학습지도보다는 친근한 형이나 누나를 통한 학습은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한 가정에 한 두명의 아이들 밖에는 두지 않는 요즘의 가정에서 자란 이 중학생들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많지 않았기에 대학생과의 만남을 신기해 하였고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도 매우 좋아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대학생들로부터 멘토링을 받고 있는 멘티 중학생들 모두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 멘티 중학생들이 만나면 좋아할 사람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고 격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그 2002년 당시에 대구 연고의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단이 코리안시리즈 우승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역전을 통한 극적인 우승이었기에 그 지역의 많은 이들이 기뻐하는 때였다. 필자는 그때 3점 동점 홈

런을 치며 우승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한 스타선수인 이승엽을 초대하고자 생각하게 되었고, 멘티 중학생 입장에서는 같은 지역의 대선수를 만나는 것이 큰 격려요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강당에 가득 찬 중학생 아이들은 실제 이승엽선수가 강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으며, 이승엽 선수는 ‘우리들의 소중한 꿈, 그 홈런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하여 ‘목표에 도달할 때 까지 앞만 보고 달려라’면서 중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이는 동아일보와 각 스포츠 신문 2002년 12월 11일자*에 크게 실리기까지 했다.

교과교육자료집 발간과 교수가 학생을 위하여 음식을 해 주며 돌보는 모습, 그리고 학교현장에 대학생이 가서 하는 멘토링 등은 이듬해인 2003년 전국 40개 사범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영남대 사범대가 종합최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는데 나름 기여를 하게 되었다** 2003년에 김용찬 학장님 후임으로 오신 김철조 학장님은 2003년 3월 영남대 영어교육과에서 한국외대 영어교육과로 옮긴 필자에게 직접 전화를 주셨다. 사범대 교수회의에서 종합최우수대학 선정 관련하여 감사함의 표시로 필자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제게 감사하다고 전화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급작스런 칭찬에 쑥스러움도 있었으나, 큰 영광스런 순간도 되었다. 또 정든 곳을 훌쩍 떠나 서울로 온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필자에게 다소 안도하는 마음도 갖게 해 주었다.

멘토링의 발전

2002년 멘토링이 영남대 사범대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 난 이후, 신문지상에 알려지면서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을 돕는 형식의 멘토링이 시작이 되었다.

* 관련기사 (<http://news.donga.com/View?gid=7891422&date=20021211>).

** 관련기사 (<http://news.donga.com/3/all/20040224/8033271/1>)

서울대와 고려대 사범대에서도 곧 비슷한 형태의 멘토링을 시작하였다.

필자는 2003년 초, 학진에서 연구비를 받아 KATE의 『영어교육』 학회지에 ‘대학생 멘토링이 중학생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이길영과 황명식, 2004)의 제목으로 게재하였고 이 연구에서 필자는 멘토링이 영어학습에 한국에서 첫 시도된 방법으로서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영어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다. 특별히 언어자아에 민감한 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멘토 대학생이 이용한 영어학습은 중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멘토 대학생은 교수법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청소년 학생들을 좀 더 이해하고 좋은 교사로 훈련받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필자가 2003년 한국외대로 옮기면서 멘토링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환하여 하게 되었다. 곧 인근 학교이외에도 동사무소로 시선을 옮겨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기초수급자 가정의 학생들과 멘토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한국외대 인근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일하는 한 지인의 도움을 얻어 가능하게 되었는데 한국외대 인근의 이문동에 그렇게 어려운 형편의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매년 마다 ‘영어교육현장실습’이라는 과목을 듣는 3학년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감당하였고, 영남대에서와 같이 학습지도는 물론 큰 형이나 큰 누나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홀아버지나 홀어머니 혹은 조손 가정이 대부분인 이들 멘티 중고생들은 주변 가족이나 친척을 통하여 자극을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고, 보호자들은 모두 생계로 인해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상황이었기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이들은 방치되어 있었다.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거리로 나아가 문제 청소년이 되는 수순을 자연스레 밟게 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멘토 대학생들은 각 멘티 중고생들의 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였고, 또 멘토 대학생들은 학기에 한두 번 정도는 멘티 중고생들

을 시내 대형서점과 외대캠퍼스에 데리고 들어오는 기회를 가졌다.

외대 앞으로 지나다니는 기회는 많았겠지만 실제 캠퍼스 안으로 들어와 기숙사, 서클룸, 학생식당 등등을 구경하는 것은 처음일 멘티 중고생들에게 자극과 도전을 주기 위함이었다. 마치 요즈음 특목고 학생들이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중심의 명문대를 탐방하면서 꿈을 키우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또, 시내 대형서점에 가 본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멘티 중고생들은 운동장 넓이의 서점을 보면서 경이롭게 생각하고 흥미를 가짐을 볼 수 있었다.

멘토링의 방법

필자가 시행하였던 멘토링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보겠다. 멘토링은 학기가 시작하여 첫째 주부터 셋째 주 동안에는 주민센터와 기초적인 접촉을 통해 조율하는 시간이며 수업시간엔 멘토링 관련 오리엔테이션과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멘토링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때때로 사례검토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특강이 있었다. 3주차부터 주민센터의 강당에서 대학생 멘토와 중고생 멘티가 처음 매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그 매치하는 주부터 멘토 대학생들은 소감을 작성하여 담당 교수에게 보내게 된다.

이 영어 멘토링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멘토링을 통해 멘티 중고생의 영어학습 향상이었다. 둘째, 이들의 삶에 대한 생활지도 측면의 도움이었다. 원래 멘토링이 멘토가 멘티의 모든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격대 인격과의 관계라 볼 때 대학생 멘토의 역할은 학습지도와 아울러 역할모델을 멘티 중고생에게 보여주도록 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목적은 이러한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멘토 대학생이 갖게 되는 교육실습의 효과였다. 대학생 멘토는 이런 교수활동을 경험하고 교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멘토링을 하는 그 학기에 또 현장의 우수교사들 5~7명 정도를 초청하여

멘토들은 실제적인 사례 특강을 접하게 되는 기회를 갖는다. 그 강의 영역은 영어교육을 위주로 하며, 일반 생활지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멘토 대학생들은 소그룹으로 조를 짜서 초청된 교사와 함께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편안한 자리에서 평소 궁금한 것들을 묻는 등 자연스런 소통이 있도록 하였다. 또 ‘영어교육현장실습’ 수업 시간에는 다른 멘토들은 어찌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어려운 점은 공유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언급하였듯이 담당 교수는 멘토 대학생들에게 멘티 중고생들을 대학교로 초청하여 도서관, 국제기숙사, 첨단강의실, 서클룸 등등 대학교 곳곳을 한 두차례 구경시키도록 독려하였다. 그리고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함께 간단한 간식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당 교수는 또 멘토가 멘티를 직접 만나 는 주 중 정해진 한 번의 시간 이외에도, 주 중 언제라도 상담하고 지도 받도록 했다 그 방법은 온라인 멘토링(E-mentoring)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는 멘토링의 관계를 위해 web 공간에서 멘토링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메일, 채팅, 혹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것이다. 온라인 멘토링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얼굴이 보이지 않기에 자신의 삶을 보다 편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 또 비동시적이기에 사려깊게 생각하고 메시지를 작성하므로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할 수 있다는 점(Sanchez & Harris, 1996)에서 멘토링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본 멘토링에 있어 담당 교수의 원칙은 멘토들의 순수성이었으며 가급적 멘토들의 교사적 사명감과 자발성을 고취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를 2002년도 처음 시작부터 지켜가고자 하였다 2005년에 시작된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대학생 보조교사제와의 연결없이 독자적으로 하였는데 왜냐하면 학습지도 갈 때 마다 20,000원씩 지도비를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보조교사제는 오히려 가르치는 이들에게 사명감과 자발성을 저하시킨

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본 멘토링에서는 저소득가정의 멘티 중고생들에게 교재와 때때로 간단한 간식을 멘토 대학생들이 배풀도록 권면하였다.

멘토 대학생들의 반응

일주일에 한 번씩 멘티 중고생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멘토 대학생들이 보인 첫 반응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집이 그렇게 어둡고 작은 것은 처음 보았다는 것이다. 10평 내외의 반지하 연립주택 음습한 공간에서 할머니와 혹은 장애인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있는 모습을 대부분의 멘토 대학생들은 처음 보는 것이어서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멘티 중고생들의 부정적인 학습태도였다. 영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알파벳 b와 d를 구별하지 못하는 중2학생들도 있음을 알고는 멘토 대학생들이 충격이 빠졌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그들은 중고시절 영어학습에 대한 의욕이 있었고 주변도 늘 그러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격려와 응원을 받아 적절하게 학원도 다니는 등 학습을 매우 밀도있게 해 왔을 것이기에 영어에 의욕이 이렇게 없는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상인 중고생들도 학습의욕이 있고 그 부모님들 또한 관심이 많은 편이기에 이들 멘토 대학생들은 새롭게 만나는 멘티 중고생들을 보고 난감해 했다.

그런데 실제 영어교육과 졸업 후에 공립 사립 중고교로 임용이 되어 나간다면 이러한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가든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들이다. 교사로서 붙들고 씨름해야 할 대상인 것이며 회피할 수만은 없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와는 전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고생들을 멘토링을 통해 접하면서 멘토 대학생들은 교사적 사명감을 느끼게 될 수 있었고, 미리 해 보는 이런 개인적 경험이 보다 더 유능한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교사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인다.



멘티 중고생들의 반응

주민센터 강당에서 처음 멘토 대학생들과 매치되는 순간만 해도 멘티는 그래도 어떤 이유로 오게 되었건 멘토 대학생들을 만나는 흥분은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의욕은 시들어 가고 의무적인 만남이 되어 또 다른 구속이 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 멘토링이 원만하게 보람을 느낄 만큼 잘 되는 경우도 있으나, 특별히 부모의 강요로 시작한 경우는 자발성이 떨어지니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 멘티들과 좋은 관계로 신뢰하며 멘토링을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며, 멘토 대학생들은 좋은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대학생 멘토들은 청소년기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였고, 멘티 중고생들의 짜증 섞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회복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또, 영어학습의 진도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 보다 영어공부의 필요성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멘티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속도에 맞추어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가는 말

이 글에서 필자는 영어격차 문제와 현장에 기반을 둔 교사교육 차원에서 멘토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국의 영어교육의 문제는 결코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사회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전문가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전문가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있을 수 있다.

멘토링은 한국의 영어교육의 큰 병폐인 영어격차의 문제를 현장에 있는

교육전문가가 그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이는 현장성이 부족한 교사교육에 대하여 그 약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기에 교사교육 기관에서는 시도해 볼 만 하다.

멘토링은 교육청을 통하여 ‘동행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실제 정확한 피드백을 통한 개선점 등을 매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영어교육학회(KATE)등 학술단체를 통하여 멘토링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행이 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대상 멘티 중고생들을 중고교에서 만나는 경우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멘티 중고생들의 가정에서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엔 멘티 중고생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어떤 멘티 중고생이 자신의 가정을 보여 주기 싫어하다면, 동사무소나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멘토링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속담이다. 특별히 주민센터를 통하여 소개받은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돕는 멘토링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나가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길영. (2010). 중등 예비영어교사들의 교육실습: 멘토링 탐구. *외국어교육*, 17(2), 283-314.
 Sanchez, B., & Harris, J. (1996). Online mentoring: A success story. *Learning and Leading with Technology*, 23(8), 57-60.



송미정*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일반 중·고등학교 영어 내신 평가, 이대로 두어도 되나?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투자 대비 낮은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영어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교 안과 밖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나서도 영어 소설택한 권을 제대로 읽거나, 일상 대화나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비효율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속변수가 되어야 할 평가가 입시라는 특수한 교육 환경에서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여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교육의 내용이나 교수 방식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현 개정 9차 교육과정까지 지속되어온 영어 공교육의 큰 틀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목표는 입시를 위해 학생들을 점수대로 줄을 세워야 하는 평가 방식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지 않다. 교실 안에서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고자 하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영어교사들의 노력은 곧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교사들은 ‘영

* KATE 23대 연구개발 부회장 역임

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과정 목표에 충실한 수업을 하기보다는 논란이 없고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한 독해, 어휘, 어법에 치중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답이 분명한 단편적인 영어의 지식이나 세부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문항 개발에 더 치중하게 되고, 학생들은 문법, 어휘 지식을 활용해서 말하고, 쓰고, 읽고, 들을 수 있는 능력보다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어의 지엽적인 지식의 학습에만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게다가 다른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학원의 내신 수업이나 문제집 풀이를 통해 교과서에 등장하거나 프린트로 나누어준 독해 지문이나 문법에 관련된 유사한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문제를 풀기도 한다. 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며 소모적인 일인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교육비 경감도 평가 방식도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그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결과물로 얻은 능력은 의미가 있는 중요한 능력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교육의 핵심에 위치해야 하고 평가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학생들이 정말로 길러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입시에서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 당국은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 논리를 뒤로 하고 공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의 영어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배운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

다. 영어 사교육비 경감과 공정한 입시를 위해 집 전체를 다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이 글에서는 위에 제시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내신 지필 고사의 내용과 유형을 분석해봄으로써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그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내신 수업 및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대학교의 2014년도 겨울 계절 학기의 영어 과목 수강생들에게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실태 조사’라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일반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내신 지필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 지역의 일반 중학교 두 곳과 일반 고등학교 두 곳에서 실시된 영어 내신 지필 고사의 내용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 중학교와는 다른 독특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한 혁신 중학교의 영어 수업 내용과 내신 지필 평가 문항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입시가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현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영어 내신 수업과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이러한 방향 설정에 있어서 한국영어교육학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바라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영어 내신 수업 및 평가

서론 부분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영어 내신 수업과 평가의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필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의 2014년도 겨울 계절학기 ‘대학 영어 2’ 강좌를 수강한 20명의 학부 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

의 영어 내신 수업과 평가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의 영어 수업이나 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대부분이 신입생인 응답자 20명은 모두 서울 및 지방의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들이었다.

설문지의 첫 번째 항목은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였다. 20명의 학생 중 18명의 학생은 수업의 대부분이 “영어 교과서나 유인물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주요 문법 사항을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거나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이 중 한 학생은 “중학교 영어 수업에서는 교과서 독해, 문법 위주였고,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위주의 독해, 문법에 대부분의 수업 시간을 할애했는데, 주로 EBS 교재나 외부 교재를 이용해 수능에 나오는 어법, 문법 문제를 풀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학생은 “중학교 저학년 때는 가끔씩이라도 미디어를 통해 원어민 교사가 교과서의 본문을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문제집 풀이 수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본문을 읽고 그에 관련된 문제에 답을 확인하고 교사의 설명을 듣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3명의 학생은 중·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으며, 원어민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답했다. 다른 3명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영어로 말하고 쓸 기회가 거의 없었고, 있다하더라도 매우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을 통해서는 말하기, 쓰기 능력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설문지의 두 번째 항목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내신 평가는 어떻게 했나?’였다. 학생들의 응답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도 교과서의 본문만 무조건 통째로 외우면 오지선다 중 하나는 고를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이었다. 한 학생은

“교과서 지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기 위해 수도 없이 쓰고 또 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영어에 흥미를 잃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은 “중·고등 내신 평가는 독해와 문법, 듣기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말하기, 쓰기 영역에 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형식적이며 비중도 낮았다”고 응답했다. 말하기 수행 평가의 유형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물어보는 항목도 있었으나, 미리 10~20 문장을 나누어주고 그대로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변별력이 거의 없어 단순히 지필고사의 평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필 평가의 내용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위해서 지나치게 수업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자잘한 오류를 찾아내는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객관식이 너무 많고 서술형 문제라 하더라도 채점의 용이함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문항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의 응답을 요약해 보면, 중·고등학교 영어 내신 평가는 실질적인 영어 사용능력의 평가보다는 교과서에 실린 영어 지문을 얼마나 잘 암기했으며, 지문에 나오는 세세한 문법 사항을 얼마나 잘 숙지했는가, 또 자잘한 오류를 얼마나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항목은 “중·고등학교의 영어 수업이나 평가가 본인의 영어 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였다. 응답자 중 과반수의 학생은 “중·고등학교의 영어 수업은 자신들의 전반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대학에서 100% 영어로 하는 수업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8명의 학생은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과 평가를 통해 문법 및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각각 문제 풀이 능력, 짧은 지문을 빠르게 독해하는 능력,

영어 지문 암기 능력,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설문지의 마지막 항목은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였다. 예상했듯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은 독해, 청해 능력뿐 아니라 말하기, 쓰기 능력도 균형감 있게 다루어야 하며, 문법, 어휘를 가르치되 너무 지식의 습득만을 강조하지 말고 실제 상황 속에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데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수능 중심의 비문학 독해 수업에서 벗어나서 모국어 읽기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부여해야 하며, 다양한 영어책을 수업이나 수업 시간 외에도 많이 읽게 해서 진정한 의미의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어 수업과 같이 영어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이 되었고 ‘영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라도 많이 말하고 쓸 수 있는 수업의 필요성과 함께 말하기, 쓰기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한 학생은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과열된 입시 체제에서는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과 평가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는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어 공교육과 사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은 그들이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영어 능력이 쓸모가 없는 매우 제한적인 능력임을 영어 수업을 수강하면서 바로 알게 된다.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은 국제화의 일환으로 영어 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영어 강의 일정 학점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중·고등학교 공교육을 통해 제대로 기르지 못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기 위해 또 다시 사교육에 매달려야 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단기간에 실력 향상이 되지 않아



좌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능 영어의 절대 평가를 시행한다는 최근 정부의 발표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수능의 절대 평가로 사교육비 지출이 줄 것이냐의 문제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교실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모든 문제에 앞서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의 목표를 재검토하고 수업의 내용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가와 그러한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입시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영어 내신 지필 고사 항목 분석

서울 소재 일반 중학교 영어 내신 지필 고사 항목 분석

서울에 소재한 모든 일반 중학교의 영어 내신 평가의 내용과 방식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 두 학교의 영어 내신 지필 평가의 문항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래 제시한 지필 평가 항목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두 개 중학교의 케이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러나, 이 두 학교의 케이스를 통해, 위에서 대학생들이 지적한 중·고등학교의 내신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영어 수업이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A 중학교의 경우

우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A 중학교의 2회분(2014년도 2학년 1학기 중간, 기

말고사) 영어 지필 평가의 항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A 중학교의 각 학기별 영어 내신 평가의 기준은 지필평가 70%(중간고사 4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30%(말하기 평가 15%, 듣기평가 10%, 태도점수 5%)이다. 쓰기평가는 따로 시행하지 않으며 중간고사의 서답형 문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를 한다.

A 중학교는 중간 지필 고사 총 32 문항(객관식 21문항, 서답형 11문항)중에서 어휘 관련 문제 7문항, 의사소통기능 관련 문제 5문항, 교과서 독해 지문 내용 관련 문제 8문항, 문법 관련 문제 12문항을 출제하였다. 기말고사도 총 34문항 중 어휘 관련 문제가 6문항, 의사소통기능에 관련된 문제가 5문항, 교과서 지문 및 교사가 따로 나누어준 독해 프린트 지문과 관련된 독해 문제가 총 11문항, 문법 관련 문제가 총 12문항이었다. 예상했듯이, 중간·기말고사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문법으로 총 문항수의 삼분의 일 이상이었다. (37.5%, 35.3%).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 영역은 독해·어휘였고, 의사소통기능 영역 관련 문제가 가장 작았다.

중간·기말 지필 평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문법 문항의 유형은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빈번히 출제된 유형은 ‘어법상 맞는 문장이나 틀린 문장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다. 영어 문장을 7개~10개를 나열한 후 다음과 같이 묻는 식이다. “다음 보기에 제시된 문장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4개 4) 5개 5) 6개”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학생들은 답을 찾기 위해 각각의 영어 문장을 ‘눈이 뚫어지게’ 잘 봐야한다. 왜냐하면 아주 세밀한 부분을 틀리게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개의 오류는 찾았으나, 하나라도 실수로 못 본 경우에는 4개를 찾은 것이 허사가 되고 그 문제는 틀리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빈번한 유형은 한국어로 된 하나의 문장을 제시한 후, 그 아래 제시한 보기의 단어를 이용하되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낮은 의자뿐만 아니라 낮은 책상들도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준 후,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나열해서 제시한다. 'anymore/chairs/old/use/old/should/desks'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제시된다. "수동태를 사용하십시오. 필요하면 단어의 형태를 변화시키십시오. 모두 12단어로 된 문장을 쓰십시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학생들이 '~뿐만 아니라'에 해당하는 B as well as A나 not only A, but also B 와 같은 상관 접속사와 그와 관련된 수일치, 수동태에 관한 어법 등 다양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때 12 단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as well as와 not only, but also중에서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chairs와 desks 중 어떤 명사를 먼저 써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고, anymore와 함께 not도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수동태 문장이므로 be 동사도 함께 쓰고, use 동사의 형태도 변형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Old desks as well as old chairs should not be used anymore."라는 문장을 답안지에 잘 썼을 때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이와 같은 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문법 실력뿐 아니라 각 단계별로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풀이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한된 45분이라는 시간 안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야 하므로 매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험 유형은 토플 시험에서 거의 만점을 받은 학생들도 틀릴 수 있으며, 영어권에서 오래 살아서 영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하는 학생도 교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으면 잘 해결할 수 없다.

또 다른 유형은 교과서에 제시된 지문에 특정 단어나 구, 문장들에 밑줄을 긋고, 어법상 틀린 부분을 모두 고르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서 지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운다. 또한 교과서 지문에 등장하는 핵심 문법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뒤섞어 놓고 순서를 바로 잡는 유형도 흔한 유형이다. 기말

고사에 출제된 한 유형은 두 문장을 준 후 11단어의 한 문장으로 바꾸어 썼을 때 7번째에 오는 단어를 쓰는 것도 있었다.

위의 제시한 유형들은 학생들의 순수한 문법적 실력을 측정하기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들을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지켰는지를 측정하는 유형들이다. A학교에서 이와 같이 복잡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아마도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것이다.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루는 문법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평이하게 출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여 있는 강남구 중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만점을 받게 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강남 소재 중학교 교사 두 명에 따르면, 영어 내신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서 길게는 한 달 전부터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며, 출제를 한 후에도 교사들이 모두 모여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너무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문제를 가려내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함정을 넣어둔다고 한다. 이러한 시험의 역류 효과(washback effect)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독해 문제의 경우도 가장 빈번한 유형이 교과서 지문에 있는 한 문장을 떼어내서 그 문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물어보는 유형과 지문에 나오는 문장들의 순서를 뒤섞어 놓은 뒤, 그 문장들의 순서를 바로 맞추는 유형, 본문의 일부를 한글로 바꾸고 그것을 영어로 바르게 영작하는 유형, 그리고 교과서 지문의 일부를 떼어내서, 여러 군데 빈칸을 주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고르는 유형들이다. 이러한 유형은 필자가 수십 년 전에 치렀던 영어 시험의 유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서의 독해지문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고 쓰면서 통째로 암기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새로운 글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게 된



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주요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대화의 순서를 바로 잡는 유형이다. 주로 대화가 상식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나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 교과서에 제시된 대화문을 모두 외운다. 이렇게 반복해서 얻은 지식이 새로운 상황에 제대로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동일한 지문과 대화의 내용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행위인가?

B 중학교의 경우

B 중학교는 중구에 위치한 일반 중학교이다. B 중학교의 경우 중간고사는 지필 80%(선택형 50%, 서술형 30%), 수행 20%(말하기 10%, 쓰기 및 태도 10%)로 평가하고, 기말 고사는 지필 60%(선택형 40%, 서술형 20%), 수행 40%(말하기 10%, 듣기 20%, 쓰기 및 태도 10%)로 평가한다. 영어 지필 시험의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2014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사용하였다.

B 중학교는 중간 지필 고사 총 23 문항(객관식 17문항, 서답형 6문항)중에서 어휘 관련 문제3문항, 의사소통 기능에 관련 문제1문항, 발음 문제2 문항, 교과서 지문 관련 독해 문제7문항, 문법 관련 문제10문항을 출제하였다. 기말 고사도 총 22 문항(객관식 17문항, 서답형 5문항) 중 어휘 관련 문제가 3문항, 의사소통기능에 관련된 문제가 4문항, 강세에 관한 문항이 1 문항, 교과서 지문에 관련된 독해 문제가 총 4문항, 문법 관련 문제가 총 8문항이었다. 예상했듯이, 중간, 기말 고사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문법으로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총 문항수의 거의 반을 차지했고, 기말 고사의 경우에도 총 문항 수의 삼분의 일 이상이었다(43.5%, 36.3%).

가장 문항 수가 많았던 문법 관련 문제들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교

과서의 지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5개의 단어 혹은 구에 밑줄을 그은 후 어법상 잘못된 부분을 고르는 유형이었다. 또한 영어 문장을 제시하고 어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고쳐서 다시 쓰는 문제도 있었으며 단어를 뒤섞어 놓고 문법적으로 맞게 순서대로 배열하여 쓰는 문제도 있었다. 그 외에도 A 중학교와 같이 발췌된 교과서 지문에서 that을 모두 찾아 밑줄을 그은 후 문법적으로 기능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강남구의 A 중학교와 같이 B 중학교도 문법에 관련된 문항을 가장 많이 출제를 하였으나, A 중학교같이 “틀린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문제나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복잡한 조건을 제시한 문제는 없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문장을 제시하고 그 아래 보기에 단어들을 나열한 후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복잡한 조건을 제시한 A학교와는 달리 명확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였다. “나는 너무 바빠서 나의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my friends, too, to busy, meet) I’m _____. 이러한 문제 외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교과서의 지문의 특정 문법 사항을 비워두고 채우는 문제나 틀린 부분을 고치는 문제, 한국어 문장을 문법적으로 올바른 영어 문장으로 옮기는 문제, 단어들을 무작위로 배열해 놓고 문법에 맞게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독해 문제의 경우도 교과서 지문의 일부를 발췌한 후,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나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 지문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찾는 문제 등이 주를 이루었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이었다. 의사소통 기능에 관련된 문제는 대화를 제시한 후 어색한 부분을 찾는 문제, 대화의 일부를 비워두고 한국어 번역을 제시한 후 영작을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서울 소재 일반 고등학교 영어 내신 평가 항목 분석

일반 고등학교의 영어 내신 평가의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A학교의 2014년도 1학년 ‘영어 I’ 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B학교의 2014년도 1학년 ‘실용영어 I’ 교과목과 ‘실용영어 독해와 작문’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 시험지를 이용하였다.

A 고등학교의 ‘영어 I’과목의 중간고사는 총 35문항으로 객관식이 25문항, 주관식이 10문항이었다. 이 중에서 듣기 평가가 9문항으로 7문항은 객관식, 2문항은 듣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다. 문항의 내용은 대화를 하는 사람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 대화의 목적,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대화의 장소를 추론하는 문제까지 다양했으며 수능과 유사했다. 나머지 26문제는 모두 독해 문제였는데,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이 거의 수능과 유사했다. 26문항 중 어법 문제는 7문항이었고, 빈칸 추론 문제는 6문항, 글의 흐름 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고르는 문장 삽입 문제가 3문항,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가 2문항, 순서배열 문제가 2문항,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가 1문항, 본문의 밑줄 친 부분이 지칭하는 것을 찾아 영어로 쓰는 문항이 3문항, 문맥상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2문항이었다. 기말고사도 총 35문항으로 중간고사의 유형과 매우 유사하였다. A 고등학교로부터 수집한 3학년 ‘심화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의 내신 지필 평가 고사도 모두 수능 시험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B 고등학교의 ‘실용영어 I’ 교과목의 평가는 지필고사가 전체 평가의 70%(객관식이 50%, 서술형이 20%), 수행평가가 30%(듣기, 말하기, 어휘 평가 각각 10%)로 되어있다. 1학기 중간고사 지필 평가는 모두 25문항(객관식 20문항, 서술형 5문항)이었는데 문제의 유형은 A 고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25문항 중 독해에 관한 문제가 20문항이었는데, 글의 제목이나 주제 찾기에 관한 문항이 3문항, 본문의 세부 사항에 관한 문항이 3문항, 문맥으로 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는 문항이 6문항, 빈칸 추론 문항이 2문항, 문장이나 문단의 순서를 바로 잡거나 논리적으로 관련 없는 문장을 고르는 문항이 3문항, 기타 문항이 3문항이었다. 어법의 경우는 주어진 단어를 문법적으로 맞게 배열하는 유형이나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르는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 이 학교의 1학년 ‘실용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목의 지필 평가 경우도 ‘실용영어 I’ 교과목처럼 독해와 어법 문제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각 영역의 비중이나 유형도 매우 유사했다.

위의 두 고등학교의 다양한 영어교과목 내신 지필 평가를 볼 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실용영어, 독해, 회화, 작문 등 다양한 유형의 영어교과목을 학년별로 제공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수능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한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지필 평가 항목 분석을 통해 추론해 본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 및 평가의 현황

예상했듯이, 중·고등학교 영어 내신 지필 평가는 대부분이 독해, 문법 중심의 지필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어법에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크고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의 영향으로 독해에 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특히 강남 지역에 있는 중학교의 시험 문제는 상위권 변별을 위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문제를 출제할 뿐 아니라 유형 자체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학생들의 진정한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유형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적용해서 답을 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실시하는 말하기, 쓰기, 듣기 평가는 독해, 문법에 비해 비중이 현저히 낮고 쓰기는 A 중학교처럼 평가를 하지 않는 경

우도 있었고, B 중학교의 경우에는 노트 검사 점수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말하기는 1분 정도 자신의 의견을 선생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과 수업 시간에 짝 활동을 하는 것을 관찰하여 점수를 주기도 하고 미리 나누어준 문장이나 대화를 외우는 방식도 사용되었다. 듣기 평가는 한 학기에 한번 실시하였고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답을 고르는 것이었다. 위의 4개의 중·고등학교의 내신 평가를 분석해 볼 때, 네 학교는 수업 시간에 주로 독해와 문법에 초점을 두었을 것이고, 말하기·쓰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할애했을 것이며,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시험 때문에 거의 형식적으로 다루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경기도 소재 혁신 중학교의 영어교육 커리큘럼

교과서의 문법·독해에 초점을 둔 3년 동안의 중학교 영어 시간과 수능 독해·어법·듣기에 초점을 둔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영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짧은 지문의 독해력, 영어 문법, 어휘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은 쌓았을지 모르나, 그 지식을 이용해 호흡이 긴 다양한 글을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은 키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나라 일반 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 수업과 평가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나?

경기도 판교에 소재한 한 혁신 중학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평가 방법은 그 답을 찾는데 있어서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학교는 현재 22개 학급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 독서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독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에 영어도서관을 만들어 3,700여권의 영어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업 및 평가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어도서관에는 한 학급의 학생들이 모두 같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동일한 영어책이 30권씩 구비되어 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와 수준의 도서들이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2주일에 한 시간씩 영어책을 읽고 독서 리포트를 작성한 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를 평가와 연계하여 필독 도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말하기 수행평가를 실시하며 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쓰기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점심시간, 쉬는 시간, 방과 후 시간에 카페와 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북카페를 활용한 독서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북카페에는 영어 도우미가 있으며 700권의 다양한 종류의 영어책이 구비되어 있다. 수업 시간에 읽는 도서 외에 더 많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언제든 가져와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인 활동은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된다. 또한 이 학교는 독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읽은 책 내용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어휘, 문법, 독해, 작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업 중 읽은 도서의 내용을 묻는 도전 골든벨 퀴즈 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영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더욱더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학생에게 자신이 읽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스토리 보드 전시회도 열고 있다. 또한 영어책에 나오는 할로윈, 추수감사절 등과 같은 영어권 문화에 관련된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1, 2학년의 경우 2시간은 교과서 수업, 1시간은 도서관에서 영어책을 읽는 수업, 혹은 영어회화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 신장을



위해 영어교과를 타 교과와 내용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두 곳의 일반 중학교와 달리 독해, 문법에 치중한 수업보다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모두 고르게 통합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영어를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쓸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살아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구사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학교는 지필평가가 60% 수행평가가 40%인데, 지필평가는 25%가 서술형 및 논술형 쓰기 평가이고, 35%가 선택형이다. 수행평가는 쓰기 평가가 10%, 듣기 평가가 10%, 말하기 평가가 10%, 읽기 평가가 10%이다. 수행평가의 쓰기 평가는 영어 지정 도서 및 자유 도서를 읽고 독서리포트를 제대로 썼는지를 근거로 점수가 부여되며, 읽기의 경우는 학교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문제를 모두 풀었는지의 여부와 학교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도서를 읽은 후 리딩 저널 5편을 모두 작성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점수가 주어졌다. 말하기 수행평가의 경우는 지정도서의 세부 내용, 사건의 원인과 결과,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을 묻는 5개의 문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이 학교는 선택형 문제가 35%로 다른 일반 중학교의 70%의 반이다. 또한 말하기, 쓰기 평가를 독서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필평가는 한 학기에 두 번 시행하는데, 1차 평가는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로 전체 평가의 25%를 차지한다. 이 학교에서 실시한 2014년도 2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를 보면, 서술형 문제가 5문항이고 마지막 문항이 논술형 문항이다. 서술형 문항은 앞서 소개한 다른 일반 중학교와 유사한 유형이었으나, 논술형 문항은 ‘한 소년이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 관

한 간략한 독해 지문을 제시하고, 이 소년이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40~60 단어로 쓰는 유형이었다. 자신의 의견을 쓰는 유형은 앞서 제시한 4개의 중·고등학교의 지필평가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2014년도 2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를 분석해보면, 출제된 30문항이 모두 선택형으로 어휘 문제가 4문항, 의사소통 기능 관련 문제가 5문항, 문법 문제가 4문항, 독해 문제가 17문항이었다. 총 문항 중 50% 이상이 독해에 관련된 문제였고, 문법 문제는 10% 정도로 앞에서 분석한 서울 소재 일반 중학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중이 작았다. 이는 이 학교가 학생들의 능력을 세세한 문법 지식보다는 그 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의 향상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둔다는 것을 말해준다.

향후 영어 공교육의 방향 설정과 한국 영어교육 학회의 역할

위에서 제시한 경기도 지역의 한 중학교의 ‘혁신적인’ 영어교육 및 평가 모델은 현재 우리나라 일반 중학교의 영어교육과 평가의 방향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교육 모델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과연 학생 수가 한 학년에 수백 명인 큰 학교나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교사들이 부족한 학교에도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정부의 예산 문제, 공정한 평가와 입시와의 연계 등 그와 관련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앞에서 제시한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우리나라 일반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과 평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 보다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 혁신 중학교의 영어교사는 “처음에 영어를 정말 못하고 영어에 전혀 흥미와 자신감이 없던 학생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영어책을 읽는 즐거움을 통해서 말하기, 쓰기, 듣기와 같은 다른 능력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는 것을 보면 정말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껴요. 한 학기에 책을 30권을 읽은 학생도 있습니다” 라고 다소 흥분된 어조로 말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본인이 이 전에 근무했던 일반 중학교에도 운영이 되면 정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에 제시한 혁신중학교의 모델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외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공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더욱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모델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서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실질적인 모델을 찾아야한다. 영어 교과서를 앵무새처럼 외우고, 수백 개의 유사한 어법 문제를 풀고 또 푸는 과정을 통해 기계적으로 문장 내의 오류를 ‘귀신같이’ 잡아내지만, 자신의 생각을 그 지식을 이용하여 말하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현재의 영어 공교육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영어교육 연구의 선두주자인 한국영어교육학회는 전반적인 영어교육 연구 발전을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영어 공교육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학문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혁신 중학교의 영어교육 모델과 같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모델들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학문적 모태와 장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성찰하는 영어교사

들어가는 말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가르쳤던 영어 교과는 1982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특별활동 교과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게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이후 1997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과로 가르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영어교육 관련 학회들도 영어교육의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영어교육학회는 대학 영어교육,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초등 영어교육 등 전반에 걸쳐 한국의 영어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1965년에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회(The University Language Laboratory Association of Korea, ULLA)’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고 1972년에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되었던 한국영어교육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의 활

* KATE 23대 부회장(기획/조정) 역임



선규수*
(광주교육대학교)

동은 선도적이었다. 예를 들면, 1965년 이후 1960년대에는 KATE는 대학 영어교육에서의 어학실습실 운영, 청화식 교수법의 사용과 문제점, 미평화봉사단원의 운영 등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전부터 가졌던 관심 이외에도, KATE는 1970년대부터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분석과 사용 등 주로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영어 평가(예: 대학예비고사에서의 영어 청취력 평가), 컴퓨터 활용 언어학습(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의 사용, 영어교사 양성과 연수 교육의 강화, 조기 영어교육 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영어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1997년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영어교육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영어교육학회(KATE)와 영어교육 관련 학회들의 역할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KATE는 또한 다양한 형태로(예: 논문, 저서, 국제학술대회, SIG 학술대회) 현장 교사들의 영어 구사 능력과 영어 지도(예: 영어 교수법 사용, 영어 기능 지도, 영어 발음 지도, 컴퓨터 활용 언어 학습 등)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영어교육은 교사교육의 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초·중등 교육의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대다수의 교사들은 영어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준비 과정으로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었으며 그들은 임용 이후에도 자신의 영어 구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국내외 대학의 TESL/TEFL 과정, 초·중등 영어 연수 과정 등을 통해서 제2언어로서의 영어 교수 및 학습에 관련된 이론이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였다.

* 신상순(1994, *영어교육 48*)은 초창기 한국영어교육학회의 업적과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배두본(1995, *영어교육 50/2*), 김충배(1995, *영어교육 50/2*), 김임득(1995, *영어교육 50/2*), 권오량(1995, *영어교육 50/2*)도 각각 영어교육학의 발달, 영어교육 연구 방법의 발달, 영어 습득과 학습 이론의 발달, 영어교수 방법과 교수방법론 연구의 변천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영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영어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과 영어 교수 능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영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글에서는 영어교사들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 나은 교사가 되는 방안으로 자신들이 직면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한 성찰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영어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영어교사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성찰하고 무엇에 대해 성찰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영어교사가 자신의 영어 수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에게 알맞은 영어 교수 원리들을 정립하고 이 원리들을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어교사의 당면 문제와 해결 방안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Michel Eyquem de Montaigne, 1533~1592)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받은 조기 라틴어 교육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기술했다. 그가 라틴어를 모국어(프랑스어)처럼 잘 구사하기를 바랐던 그의 부친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에게 조기 라틴어 교육을 시켰다. 그의 부친은 아들의 라틴어 교육을 위해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독일인을 가정교사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가정부)도 아들에게 말을 걸 때에는 오로지 라틴어만을 사용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그의 부친은 아들에게 '라틴어를 라틴어

로 가르치는' 자연스러운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조기 라틴어 교육에 대해 그는 자신의 저서 『에세이』에서 특별한 기술도 책도 문법도 규칙(교훈)도 없이 라틴어를 배웠다고 서술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7살부터 시작된 중학교에서의 라틴어 교육에 대해 그는 매우 비판적으로 서술했다.

나의 라틴어는 바로 퇴보하였고, 연습 부족으로 이 언어의 사용법을 잊어버렸다.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부터 내가 받은 도움이라고는 최초에 하급반을 건너뛰는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13살에 학교를 졸업할 때 라틴어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정말로 이 과정의 장점으로 내세울만한 어떤 이득도 얻지 못했다.*

몽테뉴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였던 고전 중심의 학습에 대해 반대한 것에서도 잘 나타났다. 대신, 그는 경험에 토대를 두어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습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아동들이 진정으로 지식을 배워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교육론에 비추어 보면, 그는 조기 라틴어 교육과 중학교 라틴어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자신의 저서 『에세이』에서, 2살부터 6살까지의 모든 교육은 라틴어로 행해졌으며 이 언어가 모국어가 되었고 이 동안 프랑스어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서술에서 우리는 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더구나, 그의 부친과 가정교사는 조기 라틴어 교육에 대해 깊은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친이나 가정교사가 몇 가지의 질문들(예: 그가 왜 프랑스어보다 라틴어를 먼저 배워야 하는가?, 그가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듣지도 못하게 하고 학습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프랑스어로 묻지도 못하게 하는 것

* 이 인용문은 J. M. Cohen(1958)의 번역서 『Essais』와 손우성(2005)의 번역서 『몽테뉴 인생 에세이』(Montaigne, Les Essais)를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이 올바른 교육 방법인가? 등)을 통해서 아들의 교육에 대해 더 깊이 성찰했다라면, 그가 라틴어가 나의 모국어가 되었다고 서술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영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영어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둔다. 영어 학습자들이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몽테뉴의 라틴어 교육과 그의 아동 교육론과 관련된다. 영어교사들은 매일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한다. 영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할 때 영어교사들이 직면하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몇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교사는 자신이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몽테뉴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기 이전에, 그의 부친과 가정교사가 성찰의 과정을 거쳤으면 더 좋은 라틴어 교육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영어교사의 성품에 대한 성찰이 영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현재 영어교사로서 부족함이 없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영어교사가 되고 싶은가?” 등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영어교사들은 자신의 품성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교실에서의 교사말(teacher talk)의 사용, 영어 학습자들에 대한 태도, 학습 과제나 활동의 제시 등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누가 유능한 영어교사라고 생각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많은 영어 학습자들은 “교사의 품성이 자신들의 학습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는 제2언어습득 연구 결과는 교사의 품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영어교사는 자신의 수업의 초점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에 둘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영어 시험의 합격 여부에 둘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 영어 수업을 구상한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교실 담화를 사용할 때 학생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촉발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제2언어습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어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시작-반응-평가(Initiation-Response-Evaluation, 즉 IRE)”의 담화 구조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담화 구조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고 한 번의 교환으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영어교사는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인 “시작-반응-송환(Initiation-Response-Feedback, 즉 IRF)”를 자주 사용해야 할 것이다. IRF 구조를 자주 사용하는 교사는 항상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확장하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셋째, 영어교사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 자신과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노력이 협력 학습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브라질의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주장을 인용하자면, 교사와 학생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상호작용하고 한 공동체 내에서 공동의 역할 혹은 상보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영어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이전이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교사로서의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어교사는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교사 말을 사용해야 한다. 영어 학습자들에게 학습 자료로 제공된 언어 입력 이외에도, 영어교사는 나름대로의 교사말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몽테뉴의 라틴어 교육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 바 있다. 서양에

서는 언어 학습자들에게 특정한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그 외국어만을 사용하여 가르치려는 운동이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사업, 직업, 결혼, 여행 등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려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수요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외국어 교육의 개혁 운동(Reform Movement)’과 ‘신 교수법 운동’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교육의 개혁 운동은 Gouin, Sweet, Jespersen, Victor, Klingardt 등의 출판물이나 저서를 통해서 등장하였다.** 특히 외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하였던 교육 사업가(예: M. Berlitz)와 교사들(예: L. Sauveur)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이 ‘신 교수법’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섯째, 영어교사는 학생들에게 목표언어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들을 제공해야 하고 이 활동들은 대부분 학습자들의 유창성 개발에 목표를 둔 것이어야 한다. 소위 “상호작용적 접근법(Interaction Approach)”은 학생들이 영어 수업 중에 수행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영어 수업 중에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영어교사는 상호작용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여섯째, 영어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영어 능력과 영어 학습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허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몽테뉴의 부친이나 가정교사가 “나는 학습 방법에 대해 몽테뉴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거나 질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라

* Gouin(1831~1896)은 1880년에 출판된 저서 *The Art of Teaching and Studying Languages*에서 연속 교수법(Series Method)이라는 신 교수법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I am walking to the door,” “I am standing by the door,” “I am turning the handle” 등과 같이 일련의 문장을 가르치는 것이 연속 교수법의 핵심이다. 이 교수법은 직접 교수법(Direct Method)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 Gouin(1831~1896)은 1880년에 출판된 저서 *The Art of Teaching and Studying Languages*에서 연속 교수법(Series Method)이라는 신 교수법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I am walking to the door,” “I am standing by the door,” “I am turning the handle” 등과 같이 일련의 문장을 가르치는 것이 연속 교수법의 핵심이다. 이 교수법은 직접 교수법(Direct Method)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턴어 교육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거쳤다면 조기 라틴어 교육에 대한 몽테뉴의 평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몽테뉴가 유아가 아니라 청소년이나 성인이었다면, 그가 그의 부친이나 가정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저는 왜 이 외국어를 배워야 해요?” “저는 왜 프랑스어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등과 같이 목표 언어와 모국어, 학습 방법과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질문과 의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별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일곱째, 영어교사는 적극적인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영어교사들 중에는 교육 관련 연구는 영어교육 전문가들의 일이며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영어교사는 매일 영어 교실에서 수많은 의문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려는 과정과 결과가 연구인 것이다. 따라서 영어교육 관련 연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개별 영어교사의 일인 것이다. 이는 영어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

성찰하는 영어교사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영어교사들이 영어 수업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담화 구조는 ‘IRF’의 담화 구조였다. 즉 이 담화 구조는 (1)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2) 학생들에게 간단한 대답만을 요구하고 (3) 학생들의 간단한 대답에 대한 교사 자신의 평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제2언어습득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실 담화의 구조가 교사의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오히려 교사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발화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교사 자신의 말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교실 밖에

서 자신이 매일 수행하는 수업의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교사는 마침내 영어교사로서의 능력과 영어 교수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영어교사는 자신의 교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의 실마리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1. 나는 영어교사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2. 나는 영어 수업 중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가?
3. 나는 학생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교수 방법을 사용하는가?
4. 나는 학생들에게 너무 일반적인 질문들을 묻는가?
5. 나는 wh-질문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가?
6. 나는 듣기 과업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질문들을 제공하는가?
7. 나는 지나치게 많은 반복 연습을 제공하는가?
8. 나는 학습 수준이나 나이, 차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 언어를 우선하여 제공하는가?
9. 나는 목표언어의 의미를 가르치거나 점검하는 방법으로 번역만을 사용하는가?
10. 나는 학생들의 대답을 형태의 정확성만 고려하여 평가하는가?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교육 현장의 영어교사들이 교육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어교사들이 자발적인 연구 모임을 구성하여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영어교사들은 연구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영어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동료 코칭(peer coaching)의 형태로 동료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교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어 수업을 개선하려고 할 때에는 위의 질문들을 통한 성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영어교사는 “나는 유능

한 영어교사인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어느 교사가 유능하지 못한 교사가 되고 싶겠는가? 사실 “나는 유능한 교사인가?”보다는 “나는 유능하지 못하고 영어를 가르치기에 부족한 교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더 쉬워 보인다. 예를 들면, 영어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유능한 교사인지 혹은 유능하지 못한 교사인지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나는 학생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는가?
2. 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내용을 제공하고 공부한 결과를 항상 점검하는가?
3. 나는 학생들에게 항상 엄격하며 친근하지 못한가?
4. 나는 학생들에게 항상 군림하고 그들을 통제하는가?
5. 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시험을 부과하는가?
6. 나는 장기적인 학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차시 학습 내용만 다루는가?
7. 나는 학생들이 목표언어를 사용하며 실수하면 자주 야단치는가?
8. 나는 학생들이 목표언어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는가?
9. 나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회피하는가?
10. 나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11. 나는 모든 학생들이 기계처럼 획일적으로 목표 언어를 연습하게 하는가?
12.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학생들을 비웃거나 멸시하기를 좋아하는가?
13. 나는 항상 자신과 학습 내용에 대해 진지한 모습만 보이는가?
14. 나는 학생들에게 연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문법 규칙을 가르치기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대부분 교사의 교과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아니라 그의 품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영어교사는 자신의 품성을 성찰하면서 위의 질문에 대해 “예”보다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유능한 교사가 되고 싶다면, 그 교사는 더 적극적으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영어교사가 더 적극적으로 성찰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자신에게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어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1. 나는 진정으로 학생들의 말을 경청하는가?
2. 나는 학생들을 신뢰하며 존중하는가?
3. 나는 모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는가?
4. 나는 학생들에게 분명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5. 나는 뛰어난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가?
6. 나는 인내심을 발휘하는가?
7. 나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가?
8. 나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가?
9. 나는 내가 가르치는 교과목의 내용을 잘 구조화시키는가?
10. 나는 학습자들이 학습 문제를 스스로 해결(협동 학습)하게 하는가?
11. 나는 학습 진행 속도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조절하는가?
11. 나는 자신이 열정적이면서 또한 학생들에게 열정을 심어주는가?
12. 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가?
13. 나는 학생들에게 사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가?
14. 나는 교사말을 사용하면서 비언어적 요소들(동작, 그림 등)도 적절히 사용하는가?

위의 질문들 또한 교사가 지니고 있는 품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가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자신의 품성과 자신의 영어 교수를 하나씩 성찰하는 것이다. 이 일은 교사가 영어 교수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도 아니다. 이 일은 교사가 영어 교과의 전문적인 지식인 영어 구사 능력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거나 영어 교수법의 사용 능력을 심화시키는 것과 같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사가 자신의 영어 수업에서 무심코 사용했던 관례적인 행동이나 말, 교수 기술, 교수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는 일이다. 이 일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 교사 자신의 관례적인 행동이나 말, 교수 기술, 교수 자료 등을 하나씩 바꾸면 교사는 자신도 모르게 유능한 교사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영어 교수 원리의 정립과 내재화

영어교사들은 양성 과정에서부터 영어 교수 이론이나 영어 교수법, 영어 교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운다. 또한 그들은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특정한 교수법과 교수 기술을 검토하여 자신의 교수 상황에 알맞은 교수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데 전력한다. 예를 들면,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상호작용 가설(Interaction Hypothesis), 사회문화적 접근법(Sociocultural Approach) 등과 같은 교수법은 나름대로는 제2언어습득 과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법 들에는 교사 자신의 개성이나 영어 구사 능력과 같은 교사 변인들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 수준과 나이 등과 같은 교실 변수들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교수법들에 대한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대두된 개념이 교수 원리의 개념이다. 영어 교수의 원리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영어교사는 자신의 품성이나 영어 구사 능력, 영어 교수 경력에 맞추는 것은 물론 영어 학습자들의 나이와 학습자 수준, 학습자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영어 교수 원리들을 정립하고 이들을 강화하

거나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영어교사는 그의 영어교육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영어 교수의 원리들을 내재화하고 심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면, 교사는 아래에서 제시된 질문들을 통해 끊임없이 묻고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어 교수의 원리들을 정립하고 강화할 수 있다:

1. 나는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가?
2. 나는 학습자들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할 수 있는가?
3. 나는 학습 목표나 학습자 수준에 따라 수업 모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4. 나는 언어 형태나 기능, 의미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지도하는가?
5. 나는 학습자의 창의성이나 사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는가?
6. 나는 지시문을 제시할 때 시각자료(그림 등)를 사용하여 지도하는가?
7. 나는 단어나 형태 중심 교수와 의미 중심 교수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도하는가?
8. 나는 목표언어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가?
9. 나는 특정한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10. 나는 언어 기능의 정확성 활동과 유창성 활동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사용하는가?
11. 나는 학습자들이 언어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생성하도록 지도하는가?
12. 나는 음성언어 교수와 문자언어 교수의 방법과 비율을 적절하게 고려하는가?
13. 나는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의 발음을 익힐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가?
14. 나는 듣기 기능 개발을 위해 다양한 영어와 엑센트를 지닌 자료를 제공하는가?
15. 나는 영어 수업에서 영어 교재와 함께 진정성 자료를 사용하여 지도하는가?
16. 나는 과제, 역할놀이, 대화 연습 등을 제공하기 위해 협동 학습을 제공하는가?
17. 나는 과제, 역할놀이, 대화 연습 등을 정보 차이 원리에 근거한 제공하는가?
18. 나는 “이해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적절하게 제공하는가?
19. 나는 코퍼스 자료(corpus data)를 적절하게 제공하는가?
20. 나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가?
21. 나는 영어를 의미 덩어리로 제공하고 익히게 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는가?

- 22. 나는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출력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 23. 나는 학습자들의 지능이나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도하는가?
- 24. 나는 학습자들이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가?

위의 질문들 중 어떤 것들은 영어교사가 영어 수업을 구성하기 이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그가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은 영어 수업을 진행한 이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아무튼,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영어 교수에 대해 위의 질문들을 통해서 평생 동안 끊임없이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더 나은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일련의 영어 교수 원리들과 관련되는 위의 질문들이 교실 내에서의 자신의 영어 수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영어교사가 아무리 좋은 영어 교수의 원리들을 정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리들은 비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다.

마무리 말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영어교육에서 많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이룩해 왔다. 1990년대 이후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부가 실시해오고 있는 영어교육 관련 정책들(예: 영어교육과정의 개정, 원어민 영어교사의 확대 운영, 의사소통 중심 영어 연수 확대 등)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이라는 목표의 달성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영어교육학회는 창립 이후 국가의 수많은 영어교육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KATE는 또한 논문, 저서, 국제학술대회, SIG 학술대회 등 다양한 형태로 초·중등 영어교사들의 영어 구사 능력과 영어 지도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KATE는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들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초·중등 영어교사들이 자신과 영어 수업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KATE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 학습자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어교육 관련 정책들이 일정 수준의 성과들을 내고 이 성과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내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가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고 상당한 정도의 실패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영어교사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성찰하고 이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일은 국가나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영어교사가 교사로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과 아울러 자신이 가르치는 영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사의 언어나 행동, 교수 기술, 교수 자료 등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없나 성찰해 보는 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가 스스로 이러한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면, 그가 가르치는 영어 교실의 수업 분위기는 그 이전보다 더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영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교사들은 자신의 영어 수업을 적극적으로 성찰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영어 교수 원리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 유능한 교사가 되고자 하는 교사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수법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할

